



基礎 研究 活潑 增產, 耐冷 研究 進展

表 鉉 九 〈서울大 農大教授〉

◇ 食糧問題와 農學界 ◇

금년도는 類例 없는 異常低温으로 벼 농사가 큰 凶作을 면할 수 없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 이 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편 과거 반년동안 風雨가 순탄하여 豊年の 즐거움을 누리는 동안에 食糧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食糧問題를 安逸하게 다루려는 어리석은 사고에 一大警覺心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 까닭에 불행中 多幸이라고 할까?

農業生產의 主宗인 벼농사가 凶年이 든 마당에 農學界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할련지는 모르나 農學人은 이러한 危險性을 예상하고 항상 경고하면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연구해 왔다.

'80년에 農學界의 가장 뜻깊은行事는 農業科學協會가 주최한 「'80 農業科学 심포지움」이었다. 主題는 “未穀增產의 意義와 課題”였다. 一年 전에 정해진 이 주제의 성격과 내용구성으로 보아도 農學人들이 食糧問題를 얼마나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심포지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主催 : 韓國農業科學協會

後援 : 農村振興庁

日時 : 1980年 10月 18日

場所 : 農村振興庁 大講堂

主題 : 米穀增產의 意義와 課題. (朴基喆 延世大学校 副総長)

副題 : [第一分科] 生產技術上의 課題

1. 地力…慎鏞華 (湖南作物試驗場長)

2. 灌排水 및 耕地整理…朴成宇 (서울大 農大教授)
 3. 機械化…金聲來 (忠南大 農大 教授)
 4. 品種, 栽培技術 및 災害…咸沫秀 (作物試驗場長)
 5. 病虫害 防除…玄在善 (서울大 農大 教授)
- [第二分科] 農業經濟 및 指導上의 問題
1. 經營規模 및 勞動力…金東熙 (農村經濟研究院 副院長)
 2. 揭精 및 貯藏…金熙甲 (農檢試驗所長)
 3. 價格 및 流通…沈永根 (서울大 農大 教授)
 4. 農村指導 및 技術普及…張在善 (農村振興庁 技術普及局長)
 5. 消費節約 및 食生活改善…金升珪 (農村營養改善研修院長)
- (심포지움에 앞서 坪井八十二氏 (韓·日異常気象과 農作物對策)이란 特別講演이 있었음)
- 協會가 주최한 심포지움 (10月 18日)을 중심으로 17일~19일 사이에 대부분의 學會가 秋季學術發表会를 水原에서 가졌고 春季學會는 地方에서 가졌다. 각学会의 學術活動은 예년보다 눈에 띠게 활발하였다. 즉, 대부분의 學會는 1년 1일 이상의 심포지움과 特別講演會를 개최하였고 學會에 따라서는 외국의 著名한 學者를 초청하여 세미나 또는 特別講演會을 열기도 하고 필드트립을 하기도 했다. 全学会의 활동

을 소개할 紙面이 없으므로 몇 学会만을 例示하기로 한다.

◇ 重要学会의 活動相 ◇

作物学会：研究의 역점은 水稻의 稻熱病 및 耐冷性에 관한 基礎研究에 두어졌다. 統一系統의 벼의 稻熱病問題는 予見했던 것인만큼 ① Race와 品種과의 관계, ② 稻体内 化学成分과의 관계 ③ 耐病性品種의 育成에 최대의 노력이 경주되어 数目内로 몇 가지 새로운 耐病性 品種이 命名될 것이다. 금년에 특히 문제가 되었던 耐冷性問題에 관해서는 ① 生理的機作, ② 生育段階別 耐冷性의 相互關係, ③ 冷害檢定方法 ④ 耐冷性系統의 育成 등에 進一步의 성과를 얻었다. 이 밖에 米麥 및 大豆栽培의 기계화除草剤의 활용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며 麥類의 寒害, 밀의 品質改良, 早熟·耐寒性品種育成, 大豆의 퍼저모자이크비루스耐病性品種育成, 用途別品種育成의 기초연구 등에도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

農化学会：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성대한 기념식과 特別講演 및 學術發表会가 10월 17, 18일兩日에 걸쳐 성황을 이루었다.

育種学会：春秋 2회에 걸친 學術發表会에서 農, 林, 畜, 園芸, 蠶業 및 基礎研究분야의 많은 論文이 발표되었는데 특히 分子遺伝學의 育種學의 应用, 遺傳工學 분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畜産学会：5回 발행된 学会誌에 총 58편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보아도 学会活動이 매우 활발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家畜의 営養, 飼養, 飼料分野가 총 29편으로서 이 분야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였고 繁殖生理와 草地分野에서 7편, 生產分野에서 6편, 育種分野에서 4편其他分野에서 12편의 論文이 발표되었다. 이들 논문 중에서 연구가 많이 진전된 것은 家禽에 대한 燐의 適正供給水準決定, 済洲道韓牛의 繁殖障害, 国產磷酸칼슘剤의 飼料의 價值, 韓牛肥育促進에 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植物保護学会：春秋 2회의 研究發表以外에 봄에는 病虫害의 綜合的 防除에 관한 심포지움과 가을에는 害虫의 Resurgence, 紋枯病, 비루

스病에 관한 討論会가 있었다. 3回 発刊된 学会誌에 발표된 論文數는 도합 29篇인데 基礎研究의 強化傾向을 엿 볼 수 있다.

蠶絲学会：이 분야의 최근의 業績中 두드려진 것으로서는 密植에 의한 省力速成桑園造成, 多収·多絲量 누에 新品種 참 115×참 116 (春蠶期用)의 育成, 人工飼料 蠶試 3号型의 개발, 生糸와 合成纖維의 複合糸 製造 및 製織에 関한 技術 開發등을 들 수 있다.

園芸学会：春秋 2회의 研究發表会에서 55 편의 論文이 발표되었으며 發表件數가 증가함에 따라 '81년도부터 学会誌를 년 4회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봄学会에서는 “施設園芸에 있어서의 太陽熱의 效果的 利用方案”이란 심포지움이 큰 성황을 이루었다.

農工学会：定規 学術發表 이외에 特別講演 貯水池見學, 座談會 (2回) 등 다채로운 행사가 있었으며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주최하고 農工学会와 氣象学会가 共同主管하는 防災科学에 関한 세미나를 열어 防災科学 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

林学会：심포지움과 學術發表会를 春秋 2회씩 가졌고 学会誌를 5회 발간하였다. 봄심포지움에서는 蘇聯의 林業, 가을 심포지움에서는 山火災害에 관한 5명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獸医学会：春秋의 定規研究發表会 외에 봄에는 돼지 질병에 관한 심포지움이 있었고 가을에는 다음과 같은 日本의 獸医学者招請特別講演会가 있었다.

- ① 구또오教授<北海道大学 獸医学部, 解剖学(血管)>
- ② 나시다教授<東京大学 獸医学科, 解剖学(닭)>
- ③ 모찌즈끼教授<오오사까府立大学 獸医学科, 神經病理學>
- ④ 스키무라教授<기후대학 獸医学科, 解剖学(生殖系統)>



◇ 基礎研究 活発로 展望밝아 ◇

紙面의 제약으로 余他学会의 활동 또는 그 밖의 學問領域의 발전을 소개하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다만 다른 学会도 上記한 学会들과 같이 어려운 財政에도 불구하고 성의를 놓아 보다 發展의이고 보다 創意의인 学術活動을 활발히 전개하였음을 부기한다.

学会를 통한 学術活動의 共通的 傾向은 基礎研究에 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 과거에는 政府의 研究支援政策의 방향이 実用, 그 것도 「당장에 増產을 가져올 수 있는 技術開発」을 지나치게 강요한 나머지 진정한 學問發展과 技術開發이 停滯된 상태에 있었다. 学會의 学術活動이 基礎學問研究의 振作이란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됨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 農學分野의 「學術總攬」 發刊 ◇

끝으로 農學分野의 오랜 宿願이던 農學分野의 「學術總攬」의 發刊을 보게 된 것은 '80年度의 큰 廉事라고 생각한다. 学術院에서 제16집으로 발간된 學術總攬 農學編은 1910~1979년 까지의 귀중한 研究論文을 총 1,804回에 要約 정리하였다.

収録內容은 作物, 園芸, 植物保護, 林業, 林產, 畜產 및 蠶業, 農業經濟 · 社會 및 文化, 農業工學, 造景, 土壤 및 肥料, 農藥化學 및 農業公害, 食品, 水產으로 大分類를 하고, 다시 細項으로 小分類하여 정리되었다.

□ “과학과 기술”지 投稿案内 □

=論壇= 가. 學術論增: 產業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國内外의 最新 科學技術
나. 學術情報: 새로운 海外의 科學技術 情報 紹介

=固定欄= 가. 科學隨感: 生活周邊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事例中 科學技術의 내용을 소재로 한 것
나. 漫画: 科學技術界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재로 한 것

=原稿枚數= 가. 論壇, 기타 原稿: 24枚内外(200字 원고지)
나. 科學隨感: 8枚内外(200字원고지)
다. 畫真: 1枚(명함판)

=其他= 外來語表記는 文教部에서 指定한 표기법을 사용하고 도량형은 政府가 지정한 도량형法인 미터法으로 표기해야 함. (採択된 원고에는 所定의 原稿料를 드립니다.)

